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9호 【주제 기 25818호】 주제 106 (2017)년 11월 5일 (일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분출시키는 화선식정지사업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으로 본뜬 투쟁시키는 일대 사상봉쇄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분출시키고 일대에서의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 나오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위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적기둥을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진사업의 기본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적질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공정적조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공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막강기회비중을 높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장책

투쟁의 나날에 전행단위의 높은 열정을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맞이하는 북방지구형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원에 개편 지구관할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관공정적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여 주며, 특히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해나가고있다. 개편관할당위원회에서는 여러대의 비례적비율과 같은 부속물들을 생산하여 관공정적비율보다 1.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혁신지구관할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각 단위를 있는 청년들까지도 교육수준을 높여 4.5명의 대형화, 현대화공사를 편이 완성하는 기치를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적질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공정적조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공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막강기회비중을 높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장책

중대별, 재단공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여러개의 성과 재단공들이 넘쳐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원에 개편 지구관할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관공정적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여 주며, 특히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해나가고있다. 개편관할당위원회에서는 여러대의 비례적비율과 같은 부속물들을 생산하여 관공정적비율보다 1.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혁신지구관할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각 단위를 있는 청년들까지도 교육수준을 높여 4.5명의 대형화, 현대화공사를 편이 완성하는 기치를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적질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공정적조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공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막강기회비중을 높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장책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전민총력전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기 위한 선진사업투쟁을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기공예술훈예대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3일 현재 전국적으로 날알릴기실적이 77%에 달하고 있다. 각급 당조직에서는 날알릴기실적을 성과적으로 높여 나감에 힘쓰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

전국적으로 날알릴기 77%계선 돌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제시된 과업을 높이 만들고 전진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지금 열렬한 투쟁이 더욱더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의를 더욱 북돋아주면서 파바일 서기, 파바일기운을, 경험교훈을 높이 발휘해나가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당위원회와 도농총련회위원회 일군들은 가을철의 불리한 기상후조건으로 하여 버거운 길리와 날알릴기전투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된데 맞게 도안의 모든 령도를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의주시, 용원, 염주, 철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여 주며, 특히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해나가고있다. 개편관할당위원회에서는 여러대의 비례적비율과 같은 부속물들을 생산하여 관공정적비율보다 1.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혁신지구관할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각 단위를 있는 청년들까지도 교육수준을 높여 4.5명의 대형화, 현대화공사를 편이 완성하는 기치를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적질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공정적조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공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막강기회비중을 높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장책

최근년간 편이여 최고수확년 도수준을 돌파해는 배전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도 지난 10월 27일까지 도적으로 날알릴기실적을 제1연차 목표인 100%에 도달한 단위를 많이 찾아내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경내채굴의 대형화, 현대화 빛나게 실현

광산공작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에 중앙생산의 일군들과 노동자, 젊은이들은 경내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치는 생산을 끝없는 대량생산까지로 전진시키는 자랑한 위훈을 떨치었다.

은 나라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로 부속물들을 끌어내리고있는 데에 중앙생산에서 창조된 혁혁한 성과는 온갖 적대세력들이 발악할수록 당의 사상과 뜻으로 더욱 굳게 용지 지력자강의 비침은 철공같이 내달리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뚜렷이 표시한 장거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과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력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경내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이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 8년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안간본을 쓰시고 석수르른 막장굴을 일으키시며 경내채굴의 대형화, 현대화실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생산을 찾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지난 시기 6월 5일경, 금산경, 장년경의 대형화, 현대화를 편이 실현하여 광부들이 채굴

조건이 좋은 대형채굴장을 하고 있다. 광산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는 모습을 위대한 장군님들이 보아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러내셨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대형생산을 밀고나가려고 한다. 4.5명의 대형화, 현대화공사를 편이 완성하는 기치를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적질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관공정적조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생산공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막강기회비중을 높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당사업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공정적의 힘을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장책

도달이안고 중진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눈부신 기록을 창조하고 있다.

김태영소대에 전투과지를 정한 광산일군들은 그들의 심장마디에 불을 때는 정치사업을 화선적으로 벌리고 있다.

올해 4월 김태영연합기업소 고령연영소대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천수님의 축하편지에 걸한 김태영소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산경을 천지지도하신 10월 15일을 맞으며 청년경과 온산경을 관통하고 대형채굴장건설을 완공할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기회를 합쳐 새로운 굴진방법을 창안하고 일하고 효율이 높은 굴진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전례없이 높였다. 암송기가 맞으면 정체가 화하고 수갑하고 비번치러가 놓이면서 소대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달려나와 비번치러를 하면서 순간도 굴진속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10월 15일, 위대한 장군님의 천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온산경의 대형채굴장건설 완공의 승전보음을 자랑스럽게 환민 광산에서는 지금 대형화, 현대화 실현된 온산경에서 매일 수백의 공리들은 광산을 광산생산하고 있다.

광산의 모든 광들의 대형화,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받으며 드림도 없이 관철한 중앙생산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신심들이 5개년전략과지점명을 향해 기세급진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호

년간 철강재생산계획 2배이상 넘쳐 수행

청진강재공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만들고 전진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지금 열렬한 투쟁이 더욱더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의 일군들이 날알릴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사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것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원호식연속조각기에서 제시되는 과학기술적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원호식연속조각화림에서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많은 연보를 실감하면서도 철강재생산을 한층더 높여나갈 수 있는 불철지언을 마련하였다.

유도, 압연장치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실비율의 증가에 힘쓰고 있다. 원호식연속조각공정을 꾸릴 데일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올해 2작업반과 압연2작업반이 대로의 일에서 정공 같이 내달렸다.

올해 2작업반의 용해공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었다는 열의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것을 자력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지난 시기 하루이상 걸리던 로보수를 3시간동안에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선 2작업반원들은 서로의 지력과 힘을 합쳐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압연기를 비롯한

들어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였다.

공부작업반원들은 합리적인 작업공부들과 수비공부들을 장인도입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무한히 높여 지난 시기 전분공부들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던 어렵고 힘든 용가공을 몇시간동안에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압연기를 비롯한

실비율의 정상가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 1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도 새 기적창조를 이룩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로동계급은 연간 철강재생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한 공적들이 도인의 전투정신을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호

이들은 덕천지구관할당기업소 덕천관할 미수관할지역의 서창천년관할 조근철년관할지역들에게 여러차례 걸쳐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이 기한전에 맡겨진 일대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만들고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높이 이끌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으로 고구려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만들고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높이 이끌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으로 고구려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덕천지구관할에서- 본사기자 리철호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힘있게 지원

전국 각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써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만들고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높이 이끌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으로 고구려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리철호

의 관공정들에 용해공과 파이인, 세멘트와 통나무 등 250여종에 50만점에 달하는 자재와 각종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방호하여 80종에 10만여점의 지원물자들을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선진사업단위에서 창조된 성과를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당, 무역, 정전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에서 인민경제의 선진부문인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지원사업에서는 인민군대가 앞장섰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인민부대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석탄지구

필요한 물자들을 관공정들에 보내주어 관공정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홍주철년4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200여종의 설비, 자재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장해주었으며 진행중에 있는 도안의 10여개 중소발전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빠른 기간안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맡어주었다.

이밖에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에서 전력공업부문에 많은 자재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강원, 연변, 함주에서도 중소발전소건설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선진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내각과 성, 중앙기관에서는 관공정들을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착취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가 석탄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의 일선에 나서고있다.

국도환경보호청과 전진전제공업에서 수백개의 단위에 명을 비롯하여 많은 후방물들과 후방물자들을 관공정들에 지원하였으며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공업성, 대외경제성, 임업성, 도시경영상, 문화성, 수산업, 국가개발위원회, 중앙은행, 무역은행,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유원지총국, 대외건설지도국에서도 관공정들을 자기 입체로 도와주며 지원하고 있다.

각지의 인민들이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중요성에 대한 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고 있다.

평안남도 수천군인민위원회

이때단위의 리육회부문을 비롯한 총일꾼들은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진생산의 기본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받들어 관공정사업에 고결한 충성을 바치고 있다.

이들은 덕천지구관할당기업소 덕천관할 미수관할지역의 서창천년관할 조근철년관할지역들에게 여러차례 걸쳐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이 기한전에 맡겨진 일대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만들고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높이 이끌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으로 고구려 전진, 선진사업투쟁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이러한 위대한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받으며 드림도 없이 관철한 중앙생산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신심들이 5개년전략과지점명을 향해 기세급진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호

력사에 길이 빛날 숭고한 의리의 세계

이 땅에 얼화같은 후대사랑의 력사가 역력히 굽어차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 그 이름만 불리보아도 혁명전사들에 대한 덕두산정세위인들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가 어려오고 주제혁명위원의 절충기를 굳건히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변혁명학원 학생들은 우리 당과 해외로 있고 사는 조선노동당의 아들딸들이야 나의 아들딸입니다.》

뜻깊은 창립 70돐을 맞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원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뵈옵는것만 같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불렀다.

아버지! 이 길잡이 부름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나.

위대한 수령님의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의 구절이 기억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최성원 전우들에 대한 동지적애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우리는 조국에 건설하기 바쁘게 일군들을 따져헤아려 해의에 넘겨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조국으로 데려왔다고 회고하시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사랑과 의리를 지니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유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쏟으셨다.

주제 37(1948)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하신 교시는 오늘날도

만사민의 심금을 울려준다.

혁명가유자녀들은 지난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기때문에 자기의 요구를 남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며 어떤 음식이 먹고싶거나 입맞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잘 말하지 않았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육신의 정으로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신 우리 수령님,

깊은 밤 비참소리가 울 사나와도 원아들의 침실이 솟지 않음과 적정 지시에 침실을 열어주시고 인제인가 놓은을 돌아보실 때 그후장을 보시려고는 학원일군들을 현지로 부르시어 원아들에게도 이런 고추장을 맡고주라고 하시었다.

우리 원아들은 바로 이런 전이배의 품에서 구질없이 가슴을 촉촉히 세상에 부릴없이 자라났다.

《세상에 부릴없어라, 이 땅의 그 누구나 다 그리하지만 아마도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하는것은 혁명학원의 원아들이었다.

《우리의 아버지 길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땅의 품》이라는 노래의 구절을 부를 때면 지도 불레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원아들이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이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때가 들이쳐진다. 학원원장에게 진화를 거시어 친척이 없는 아이들은 방학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고 물으신 수령님께서는 원장이 직접 그애들을 데리고 금강산 갈때도 간다던 학생들도 부모를 따라 떠려하는것 같아 즐겨회화있고 원장자신도 아들딸들을 데리고 나올 이가는것 같아 좋았것이라고, 그 학생들을 우리와 같은 이상 부모모양을 갖추어 주라고 간곡히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주제 37(1948)년 12월말 바르시신 시간을 내시어 학원을 찾으셨을 때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수놓아졌던가.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아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에 대하여 물어주시었다.

인민군대에 나가 아버지처럼 용을 잡고 원우와 싸우겠다는 한 원아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네가 참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그리면서 유자녀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부모들의 뜻을 이어 우리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금세기보다 더 소중한 원아들, 그들은 우리 혁명의 골간들로 자라야 할 아버지수령님의 아들딸들이었다.

학기에 보던 호르민 전자의 나날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유자녀들도 친위중대를 조직하여 자신의 길에 두고 애지중지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이었다. 전후에도 만경대혁명학원을 끝없이 찾고왔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손길이라야 이 땅의 유자녀들은 우리 혁명의 대들보로 억세게 자라났다.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이어 우리 원아들을 끝없이 이기고 사랑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리하여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위하여 온갖 은을도 다 들여주시었다. 혁명 학원원장에 갖추어진 현대적인 교육시설비들과 진귀한 생활용품들, 따뜻한 잠자리와 푸짐한 식탁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깃들여있지 않은것이 없었다.

새이리 호르몬을 우리 어찌 얻을수 있느냐. 20년전 출아시는 원수님들 앞으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승령한 그 영상이.

그때 한 원아가 위대한 장군님의 아진술로우에 정히 정리를 베풀어 드리었다. 원아를 정리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르느 일군들의 가슴은 젖어붙었다.

정녕 그것은 우리 장군님과 원아들 사이의 끝없는 사랑과 애정, 끝없는 정열의 관계를 보여주는 불멸의 화육이 아니었나.

주제 87(1998)년 1월에도 새 해를 맞는 원아들이 보고있으시어 또 당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그날도 원아들을 만나시어 나이와 건강상태, 학습과 생활정형에 대해 알아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학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에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 처참이 어려운 시기에도 혁명학원교정의 밝은 불빛은 꺼질줄 몰랐고 학생들은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었던것만 같아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나날 혁명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원아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었나.

경애하는 원수님만 봐오면 행복을 겨워는 눈물부터 흘리는 원아들, 그들의 마음속에 피눈물의 아름이 그대로 남아있던 주제 101(2012)년 1월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안으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뜻깊은 그날 시간이 가더라도 다 돌아오고 하시며 체육관에 들어서서 아버지 손으로 활보시며 원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상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잘 다듬어주라고, 체육관을 비롯해서 더 잘 꾸려주시고 하시던 말씀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었던가. 그해 10월에는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 강변혁명학원을 방문하러 오셨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모시었을 때에는 몸소 제막식장에 나오시어 원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주제 102(2013)년 3월 인민군대 여러 부문 사령을 지도하시면서 원아들에게 새로 입원 의무군복을 보아주시던 그날의 이야기는 격정적인 회고집수 없다.

새로 제작한 의류를 입고있는 원아들에게 어느것이 더 마음에 드는가, 추운 겨울에 의류에 털을 달면 더 좋지 않겠는가를 다정하게 물어 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외투를 세진 형태로 만든것이 좋다는 원아들의 말을 웃음속에 들어 주시면서 원아들의 요구대로 세진것으로 만들어주고 털도 맡아주라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원아들을 뜨거움에 감격하게 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었고 올해 3월에 또 원아들과 함께 나누를 심으셨다.

정말 하나같이 끝날하고 튼튼한 원아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강국의 앞날을 그리보시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대를 이어 배울어지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속에 우리 혁명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그 견도는 위창천만하다.

우리의 원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자기들을 육신의 정으로 따지지 않아기려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여기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아 할 혁명의 배가 곳곳이 걸어갈 미끄럼과 자랑스러운 제수들을 가진 주제혁명원들은 언제나 원수님을 뵈옵는다.

본사기자 최 유 일

덕두산정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속에 만경대의 혈통, 덕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

그들이 입고있는 학원복에도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을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다정한 사랑이 뜨겁게 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모시기게 된데도, 혁명혁명학생들이 입고있는 학원복에도 원아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함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애아필수 없는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주제 36(1947)년 8월 어느날 덕두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올리는 학원복도안을 받게 되시었다.

도안을 받으시고 그것 유를 어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가 그것을 물으시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좀 그려보느라고 하였는데 마음에 드시겠는지 물으셨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 도안은 김정숙동지께서 전남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복을 그려보고 오시어 원아들의 옷차림문제도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격정적 열정을 드러시려 밤을 새우며 그리셨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우에 혁명복도안을 펼쳐놓으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었다.

김정숙동지로부터 학원복도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안을 살펴보시었고, 모두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다정한 사랑이 뜨겁게 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모시기게 된데도, 혁명혁명학생들이 입고있는 학원복에도 원아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함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애아필수 없는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주제 36(1947)년 8월 어느날 덕두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올리는 학원복도안을 받게 되시었다.

도안을 받으시고 그것 유를 어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가 그것을 물으시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좀 그려보느라고 하였는데 마음에 드시겠는지 물으셨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 도안은 김정숙동지께서 전남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복을 그려보고 오시어 원아들의 옷차림문제도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격정적 열정을 드러시려 밤을 새우며 그리셨

학원복에 깃든 다정한 사랑

본사기자 정 순 화

김 영 동 지 가

2. 8직동청년관람을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순천지구청년단평원합기업소 2. 8직동



【조선중앙통신】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반미최후결전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

혁명의 승리는 사상과 정신력의 승리이다.

오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를 무장한 구미제국에 쳐치고 세기를 이어 지우며오는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어떠한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1950년대 당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이며 친한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웅적위용으로 불려들이는 선군조선의 넘칠수 없다.》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수는 전회의 불길속에 발발한 조국수호정신은 반미투쟁의 훌륭한 귀감,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다. 장전된 2년반에 인내는 창초한 우리 공화국과 세계(외강)를 때리던 미제국의 전성은 사멸상 번죽으로 찢조한 남강도사실상 반미투쟁과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없는 조국혁명전쟁의 승리는 수백에 대한 절대적인 총성상과 자기의 것에서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 필수의 신념을 간직한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부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시었다.

혁명의 진전속도가 빨라지고 최후승리가 다가올수록 적대적력의 맹목은 더욱더 약화되게 된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

크나큰 믿음, 고귀한 지침

깨우쳐주신 임무의 중요성

주제 63(1974)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비서(당시)를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비서들이 리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 을 출세 움직여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을 강화할수 있고 우리의 주권을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리면서 리당비서들은 리에 있는 당조직들과 당원들도 지도할줄 알고 근로단체들과 군중도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당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당건설,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당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당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일군들이 당조직과 당원들을 어떻게 움직이

지도할줄 알아야 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은 물론 학교와 병원, 상업과 전의시설도 다 지도할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뜻깊은 교시는 자자구구 리당비서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 당위원회의 전무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과 리당비서들이 지켜야 할 준칙을 제시하시었다.

리당비서들은 그이께서 가르쳐 주신데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는 신심과 용기로 가슴끓이였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머사람과의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데 크게 말려있다고 하시었다. 그리하면서 당일군들이 출는 사업방법을 가지고 일할때만 당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인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자신들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갈아들어 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지나던 12월 제1차 전당총국 당위원장대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조급담용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경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급당위 원장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을 심장으로 대외항가자들에게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들의 유혹하고 탐된 총부,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신것처럼 말만 들은 집안이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한피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대외항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솟고인민관, 인민철학을 지니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장엄히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으로 불렁마냥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경에 힘써어있는 대외항가자들에게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들의 유혹하고 탐된 총부,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신것처럼 말만 들은 집안이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한피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대외항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솟고인민관, 인민철학을 지니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장엄히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으로 불렁마냥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경에 힘써어있는 대외항가자들에게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들의 유혹하고 탐된 총부,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신것처럼 말만 들은 집안이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한피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대외항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솟고인민관, 인민철학을 지니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장엄히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으로 불렁마냥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경에 힘써어있는 대외항가자들에게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들의 유혹하고 탐된 총부,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신것처럼 말만 들은 집안이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한피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단위의 사업성과는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이며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활에 해당 단위의 성과가 좌우된다.

하다면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대선전략을 철저히 관철 하며 지역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적들의 무모한 백전백승과 비열한 제제압압책공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 오늘날, 중앙 기관 일군들의 사업성과와 일본 세는 어떠한가 하는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집정공송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자리이며 일군들은 생의길을 헤쳐 나가는 데서 최후방이 되고 화선해가 대오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특혜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이 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일군들이 만짐을 질 때

자동차운수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평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함과 높은 사업의욕을 지니고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서 큰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고 1970년대 일군들처럼 누구나 만짐을 지고 힘껏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관리국에서는 함포로 평탄한 과업이 나왔다.

평형기리전설과 세로지구 축산 기지건설, 조선혁명박물관건설 공사와 김일성경기장개조공사, 중앙공물원 2단계건설공사, 중앙은행 각지 중요도산건설 등 중요한 과업들을 맡아 수행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평도자 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저의 결심은 삼반년기간에 평도자건설의 생산공정률을 복구, 개선하여 배스생산과제의 20%를 수행하며 그 경험에 토대를 하반년에 나머지생산과제를 수행하는것입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전속으로 달릴 때 계속혁신, 계속 전진할 수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고려약생산부문의 앞선 나가는 비결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특이일군의 결심은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기술적으로만 만짐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있다.』

『평도자건설을 위한 과업분담을 적고 있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인사들을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19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수일동지는 로씨야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로도미안스키 회장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장동지 겸 정치국 부위원장 로씨야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로도미안스키 회장과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에게 면담하는 뜻깊은 인사를 김수일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김수일동지는 김수일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장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분담을 위한 투쟁에 단결적으로 앞장서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장동지 겸 정치국 부위원장 로씨야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로도미안스키 회장과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에게 면담하는 뜻깊은 인사를 김수일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청년 공원 새 로 건물

구성시에 청년공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공원에는 수영장과 물놀이장, 배구장, 축구장 등 체육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문화회관, 도서관, 음악당 등 문화 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청년공원은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정년동맹원들의 열의와 열정

정년동맹원들의 열의와 열정. 정년동맹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정년동맹원들의 열의와 열정. 정년동맹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정년동맹원들의 열의와 열정. 정년동맹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정년동맹원들의 열의와 열정. 정년동맹원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각지 념맹조직들이 가을철 조력공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각지 념맹조직들이 가을철 조력공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념맹조직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산림 복구 전투 활발히 전개

산림 복구 전투 활발히 전개. 산림 복구 전투는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산림 복구 전투는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 복구 전투 활발히 전개. 산림 복구 전투는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산림 복구 전투는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 복구 전투 활발히 전개. 산림 복구 전투는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산림 복구 전투는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 복구 전투 활발히 전개. 산림 복구 전투는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산림 복구 전투는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에서

과학 기술 증진 사업에서.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과학 기술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에서.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과학 기술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에서.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과학 기술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에서.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과학 기술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 있다. 과학 기술 증진 사업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품질을 높여 기업에 공헌하고 있다.

뒤로써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뒤로써에

뒤로써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뒤로써에

뒤로써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뒤로써에

뒤로써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뒤로써에

뒤로써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뒤로써에

